

고종 2년의 演慶堂 修理에 대해서

김 동 욱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 궁궐, 사대부주택, 남성영역, 여성영역, 비대칭

1. 머리글

이 글은 창덕궁 후원에 자리잡고 있는 演慶堂 건물의 현재 모습이 지금까지 알려진 순조28년(1828)이 아니고 고종 2년(1865) 수리 시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고종 2년 수리 내용을 바탕으로 19세기 궁궐건축의 특징을 논하려는 것이다.

연경당은 공간의 구성방식이나, 시지각적인 측면에서 조선시대 주택가운데 가장 뛰어난 솜씨를 보이는 집으로 평가된다.¹⁾ 이 건물은 남녀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누마루를 두는 등 당시 사대부 주택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궁궐 내의 건물로는 이색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연경당이 처음 지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순조 27년(1827)이라는 기록과 순조 28년(1828)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대체로 순조28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으로 소개되어 있다.²⁾ 아울러 현재와 같이

두 개의 중문을 지나 각각 남성공간과 여성공간으로 진입하도록 한 건물 형태도 순조2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그러나 이 시기 창덕궁을 묘사한 「東闕圖」에 그려진 연경당은 현재 건물과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순조 28년 연경당에서 거행된 進爵宴 행사를 기록한 자료에도 현재 건물과 다른 형태의 건물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과연 현재의 연경당 건물이 순조 28년에 조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⁴⁾

한편 고종 2년(1865)의 『日省錄』 기사에 의하면 이 해 4월에 演慶堂과 근처에 있는 倚斗閣을 수리하고 나서 공사를 주관한 신하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 기사는 연경당의 현재 모습이 순조28년 창건 시 것이 아니고 고종2년 수리 후의 모습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크다. 이것은 이제까지 불분명하게 남아있는 연경당의 건립 시기와 건축형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연경당 건물이 고종 2년 수

1)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출판부, 1996, 543쪽
 2) 연경당의 건립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주남철, 『한국주택건축』(일지사, 1980)에서 건립 시기를 순조28년으로 보았으며, 최근의 저서인 주남철, 『연경당』(일지사, 2003)에서도 순조27년에 상량하고 순조28년에 완공된 것으로 비정하였다. 한편 이강근, 「창덕궁 연경당」(『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에서는 연경당의 건립 시기를 순조에게 존호를 올린 행사가 치러진 순조27년으로 비정한바 있고 최근 한영우, 「창덕궁과 창경궁」(열화당, 효형출판, 2003)에서는 순조28년 3월에 연경당에서 세자가 윤대관을 접견한 기사에 근거해 늦어도 이 시기 이전에 연경당이 존재했음을 밝힌 바 있다.

3) 주남철, 『연경당』(일지사, 2003) 16쪽에서는 현재의 건물이 순조 28년 건립 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궐도」 상에 현재와 다른 건물이 묘사된 데 대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장각 건물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결과로 풀이하였다.
 4) 이강근, 「창덕궁연경당」(『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연경당의 건립 시기를 순조 27년으로 비정하고 이 때 건물은 동궐도에 그려진 것과 같은 ㄷ자 형태라고 단정하였다.

리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때, 그 수리가 갖는 궁궐 건축사 상의 의미는 적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19세기 중반 조선왕조의 궁궐에 나타난 새로운 건축 풍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세기 궁궐에는 연경당과 비슷한 사대부 주택풍의 건물로 1847년(헌종 13)에 지어진 樂善齋가 있다. 또한 1873년(고종 10) 경복궁 후원에 지어진 乾淸宮의 건물 구성 역시 유사한 주택풍의 모습을 보여준다. 세 건물은 공통적으로 남녀로 구분된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낙선재가 가장 공간 구분이 소극적이고 건청궁이 가장 돋보인다. 만약 현재의 연경당이 순조28년 건물이 아니고 고종 2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라면 낙선재에서 연경당을 거쳐 건청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전개가 순조롭게 설명될 수 있다. 연경당의 조성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단순히 연경당 자체의 건립시기 해명에 그치지 않고 19세기 궁궐건축의 전개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 순조27년 창건된 연경당의 건물형태

연경당의 창건은 순조 27년에 이루어졌으며, 창건된 건물의 형태는 「동궐도」에 묘사된 것과 같은 ㄷ자 형태의 건물이었다고 판단된다. 창건된 후 연경당은 철종 8년(1857)까지 ㄷ자의 건물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로 왕실과 관련된 기물을 보관하거나 왕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2-1. 연경당의 창건 시기와 건립목적

연경당의 창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漢京識略」에는,

연경당은 어수당의 서북에 있다. 지금 임금 이십칠년 정해년에 세자가 진장각 옛터에 창건하였다. 이 때에 왕의 업적을 치하하고 왕에게 존호를 올리는 경사스러운 의례가 이 당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름 짓기를 연경이라 했다. (演慶堂, 在魚水堂之西北, 當寧朝二十七年丁亥, 小朝, 創建於珍藏閣舊基, 時致大朝上尊號慶禮, 成於此堂, 故, 命名曰演慶)

고 하였다. 「한경지략」은 저자가 명확하지 않지만⁵⁾ 글을 지은 시기는 순조30년으로 추정되어

연경당 건립과 가장 근접한 시기의 저술이다.

「한경지략」의 내용과 거의 같은 기사는 「東國輿地備考」에도 보이는데, ‘이 때 존호를 올리는 경사스런 의례가 있었는데 때에 맞추어 건물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여 존호 올린 일을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순조 때까지의 기사를 실은 「宮闕志」(「宮闕志」는 크게 숙종 때 편찬되어 헌종 대 증보된 것과 1907년경 작성된 「宮闕誌」가 전한다.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후 앞의 것을 「궁궐지」, 뒤의 것을 「궁궐지」 B로 표기하기로 한다)에서는 연경당을 가리켜

‘(연경당은) 개금재의 서쪽에 있고 남쪽은 장락문이라 하는데, 진장각 옛터이다. 순조이십팔년무자년에 익종이 세자로 있을 때 다시 지었으며 지금은 익종의 어진을 봉안하고 있다.’(演慶堂在開錦齋西, 南曰長樂門. 卽珍藏閣舊基也. 純祖二十八年戊子, 翼宗春邸時改建, 今奉翼宗影眞)

고 하였다. 이 「궁궐지」는 순조 재위 말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편찬시기는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한 헌종 즉위년(1834) 이후이다.⁶⁾ 「궁궐지」 편찬시 연경당은 익종 어진을 봉안하는데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궁궐지」와 같은 내용이 「增補文獻備考」에도 실려 있다.

위에 인용한 기사에서는 연경당 건립에 대해서 순조 27년이라는 기록과 순조 28년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존호를 올린 사실을 연관짓고 있다. 여기서 잠시 순조 27년의 존호 올리는 일과 28년의 관련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자.

순조는 즉위 27년째가 되는 1827년 2월18일에 정무를 세자에게 물려주는 교서를 반포하였다. 대리청정을 하게 된 孝明世子는 그 해 7월 25일에 왕과 왕비에게 尊號를 올리는 일을 정하였다. 존호란 왕이나 왕비의 덕을 칭송하여 칭호를 올리는 것으로 조선조에서는 종종 있어왔다. 왕의 존호는 淵德 凝道 景仁 純禮로 정했으며 왕비 존호는 明敬으로 하였다. 존호가 정해지면 왕과 왕비의 尊

5) 일설에 柳得恭의 아들 柳本藝가 지었다고 전한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간, 「한경지략」 영인본, 해설)

6)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한 것은 헌종 즉위년 11월 19일이다.(「헌종실록」 1권, 헌종즉위년 11월)

號冊寶 즉 송덕문을 새긴 책자와 존호를 새긴 도장을 올리는 의식을 치르고 이를 축하하는 뜻으로 진작이나 진연례와 같은 연회를 베풀게 된다. 이때 책보 받는 의식은 9월 9일에, 진작례는 10일에 慈慶殿에서 거행되었다.⁷⁾ 7월 25일에 존호 올리는 일이 정해지고 약 40일 정도 지나서 행사가 치러진 셈이다.

이듬해인 순조 28년에는 중전의 나이가 40이 되는 해였는데 왕세자는 이를 경하하는 의미에서 순조 28년 2월 12일에 자경전에서 다시 진작례를 거행하였다. 이 때의 모든 행사 절차는 『進爵儀軌』로 정리되어 간행되었다. 이어서 왕세자는 5월 15일에 중궁전의 생일을 맞아 仁政殿에서 송덕의 글을 올리는 致詞와 옷감을 헌상하는 表裏 의식을 올렸으며 다시 6월 1일에는 연경당에서 왕과 왕비를 모시고 진작례를 행하였다. 이 날의 연경당 진작례 행사 내용은 글로 정리하여 『진작의례』 「부편」에 삽입되었다. 연경당의 구체적인 건물 모습은 이 『진작의례』 「부편」에서 확인된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孝明世子는 순조 27년 2월에 대리청정을 시작했으며 그 해 7월에 왕과 왕비에게 존호를 올리기로 정하여 9월에 존호책보를 올리고 이를 축하하는 진작례를 거행했으며, 다시 이듬해 2월에는 중전의 보령 40주년을 기념하는 진작례를 행하고 5월에 중전의 생신을 기념한 치사와 표리를 올리고 6월에 와서 이를 축하하는 진작례를 연경당에서 거행한 것이다. 앞서 인용한 『한경지략』이나 『궁궐지』에서 연경당 창건 시기를 순조 27년과 28년으로 서로 다르게 기술한 배경에는 두 시기에 벌어진 행사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연경당이란 당호 자체는 존호를 올리는 경사스런 의례가 이 건물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순조 27년 존호를 올리면서 새로 건물을 짓고 당호를 연경으로 하였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특히 『한경지략』이 건물 창건에서 불과 3년 이내에 저술되었다는 점도 신뢰성을 높여준다. 한편 『궁궐지』에서 순조 28년을 창건시기로 기록한 배경에는 아마도 이 해에 연경당에서 있었던 진작례가 『궁궐지』 편찬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7) 『순조실록』 권29 순조27년 9월 신해, 임자

연경당이 지어진 위치는 珍藏閣이 있던 옛터라고 하였다. 진장각은 본래 왕실의 글씨나 그림을 보관하기 위해서 후원 내 魚水堂 북쪽에 세운 건물이라고 한다.⁸⁾ 정조 9년에 왕은 진장각에 나아가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선왕의 어필을 열람하였는데, 진장각 건물이 퇴락한 것을 보고 어필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한 기사가 보인다.⁹⁾ 아마도 진장각 건물은 이후에 철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조 때 효명세자에 의해 그 자리에 연경당이 지어진 것이다. 한 가지 추측으로는 순조 27년 존호를 정하고 존호책보를 올렸다고 하므로 이 책보를 연경당에 봉안하였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왜냐하면 연경당 터는 본시 왕실의 문적 등을 보관해 오던 곳이었고 이 때 새로 책보가 마련되었다면, 이 책보 보관을 위해 새로 건물을 지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존호가 결정된 것은 순조 27년 7월이며 책보는 9월에 올렸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 연경당을 서둘러 준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또 다른 사료에서는 순조 28년 3월에 익종이 연경당에서 신하를 만났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즉 『일성록』 순조 28년 3월 21일에 대리청정을 하던 익종이 輪對官을 연경당에서 불러 보았다는 기사가 전한다.¹⁰⁾ 따라서 연경당은 늦어도 순조 28년 3월 이전에는 지어져있었음이 확인되며 그렇다면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경당 창건 시기는 『한경지략』에서 밝힌 대로 존호를 올리고 진작례를 행한 순조 27년 9월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 창건 연경당의 건물형태

창건된 연경당에 대해서는 순조 28년의 『진작의례』¹¹⁾에 건물 모습 그림과 함께 구체적인 건물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進爵儀軌』 「附編」, 排設條에 연경당의 실내 구성에 대해서

8) 『궁궐지』 권2 창덕궁

9) 『정조실록』 20권, 정조9년 10월 을미

10) 『召見輪對官于演慶堂』 「내각일력」 순조28년 3월 21일 기사

11) 『진작의례』는 무자년 즉 순조 28년에 바로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활자로 인쇄된 몇 가지 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책에는 연경당 전경과 평면을 그린 그림이 전하며 다른 판본에는 그림이 생략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는 국립중앙도서관본의 그림을 인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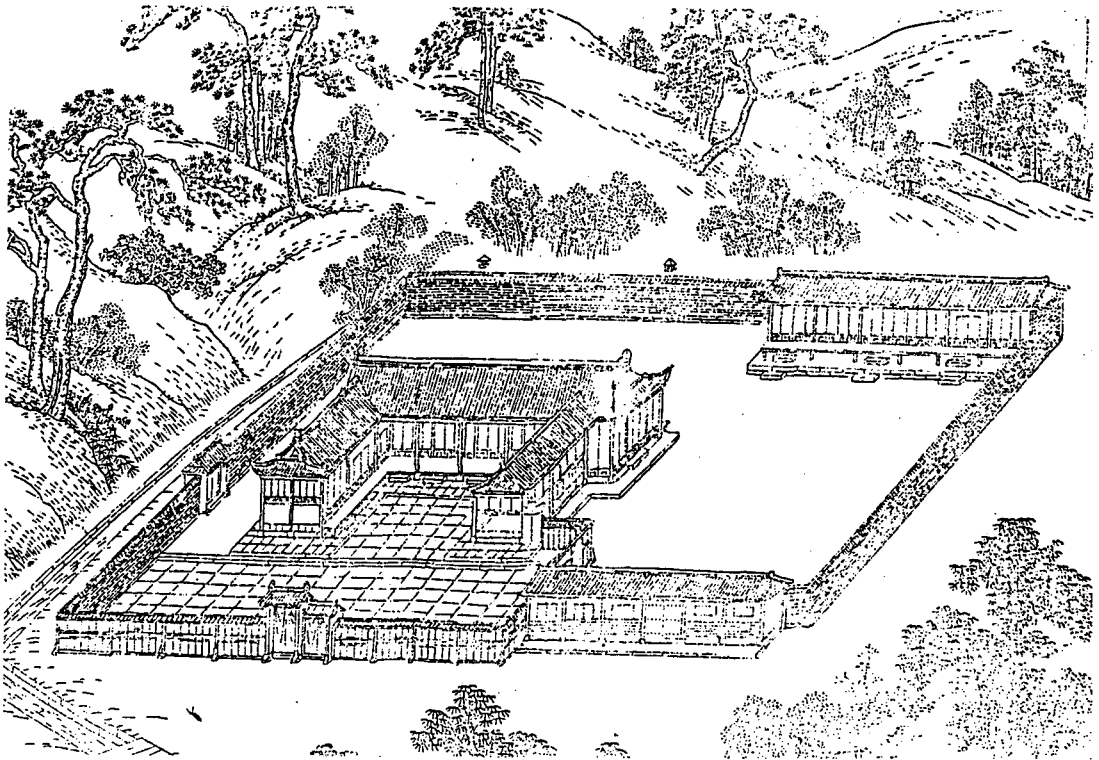


그림 1 연경당 전경 (「진작의궤」 「부편」)

正堂 東溫突 2間半 南半寢 2間 北半寢 1間 東退 3間 西溫突 4間半 廳東退 2間 祝華觀 1間 大廳 4間半 南退 3間半

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같은 책의 「演慶堂進爵儀」에는 진작례시 왕과 왕비, 왕세자의 위치를 명시했는데,

전하의 자리는 연경당 가운데 북벽에 동쪽 가까이 남향해서 마련하고 향안 2개를 기둥 밖 좌우에 두며 대차는 동온돌에 마련한다. (設殿下座於演慶堂中北壁近東南向, 設香案二於楹外左右, 設大次於東溫突)

왕비의 자리는 북벽에 서쪽 가까이 남향해서 마련하고 향안은 기둥 밖 좌우에 두고 대차는 서온돌에 마련한다. (設王妃座於北壁近西南向, 設香案於楹外左右)

왕세자 자리는 발 바깥에 동쪽 계단 위에 마련한다. 소차는 중문 밖 서쪽 가까이 동향해서 마련하며 배위는 발 바깥 계단 위에 가운데 북향해서 마련한다. (設王世子座於簾外東階上, 設小次於中門外近西東向, 設拜位於簾外階上當中北向)

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연경당 건물은 중앙에 4간반 대청을 두고 좌우에 동서 온돌이 각

각 2간반과 4간반이 있고 동온돌에 남반침과 북반침이 있고 그 밖에 동퇴, 대청동퇴, 남퇴가 있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진작의례시 왕과 왕비의 자리 배치로 미루어보면, 대청은 건물 중앙에 놓여서 여기에 왕과 왕비 자리가 마련되고 동온돌과 서온돌에 각각 행사 대기 및 휴식을 위한 대차가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중문이 있었음을 알겠다.

연경당의 모습은 「진작의궤」 「부편」, 卷首의 圖式조에 실린 그림에서도 확인된다. 즉, 여기에는 연경당의 간단한 평면모습과 함께 전경이 조감도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중심건물인 정당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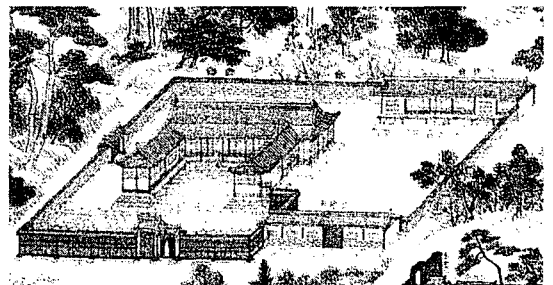


그림 2 「동궐도」 상의 연경당

적으로 ㄷ 자 형태를 이루며 한일자 형태의 지붕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 앞으로 좌우 대칭으로 2간반 정도의 돌출된 부분이 있다. 좌우 돌출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동온돌과 서온돌임을 알 수 있다. 또 정당의 우측에는 앞과 뒤쪽에 각각 정면 6간의 긴 건물이 묘사되어 있다. 한편 「동궐도」에 그려져 있는 연경당의 모습은 「진작의궤」의 기사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건물 중심에 ㄷ 형태의 정당이 있고 그 우측 앞과 뒤에 한일자 형태의 정면 6간 건물이 있는데, 앞의 것은 雲會軒, 뒤의 것은 開錦齋라고 적어 놓았다. 운회헌, 개금재는 「궁궐지」에도 명시되어 있는 건물명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순조 28년 6월에 있었던 진작례 시 연경당의 건물 모습은 현재의 연경당과는 전혀 다른 ㄷ 자 형태 건물이며 그 모습은 「동궐도」 그림 및 「궁궐지」 기사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창건 이후 연경당의 용도

창건 이후 연경당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일성록」 등에 간간이 나타나는 내용에 의하면, 연경당은 헌종 원년에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하고 나서 순조의 어진은 宙舍樓에 모시고 익종의 어진은 연경당에 모신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 순조와 익종의 어진은 한 동안 景慕宮과 景祐宮으로 옮겨졌다가 경모궁이 화재를 당하면서 다시 주합루와 연경당에 각각 순조와 익종 어진이 봉안되었다. 그 후 철종 8년에 가서 익종 어진은 창덕궁 서쪽에 있었던 大西齋로 이봉하였는데 이유는 연경당이 있는 곳이 서늘하고 습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관련된 기사를 「일성록」에서 연도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헌종 원년(1835) 6월 20일 대왕대비전이 명하여 주합루 봉심을 경신년의 예에 의해 행하고 연경당도 봉심하도록 하다.

헌종 3년(1837) 4월 13일 규장각에서 제하여 아뢰기를, 규장각과 연경당에 봉안된 순종대왕 어진 무진년 도사본 2본과 익종대왕 어진 병술년 도사본 3본 등을 봉심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하다.

헌종 3년(1837) 4월 17일 임금이 월근문 요금문에 나아가 순종대왕과 익종대왕의 어진을 주합루 연경당으

로부터 경모궁 망묘루와 경우궁 성일헌으로 옮겨 봉안할 때 친히 지송하였다.

헌종 5년(1839) 12월 15일 경모궁 봉안각이 실화되었다.

철종 8년(1842)년 2월6일 왕이 익종어진을 대유재에 옮겨 모시도록 명하다. 명하기를 연경당 터가 서늘하고 습하여 어진을 봉안한 것이 미안하므로 대유재에 이봉하는 일을 분부하다.

헌종 원년에는 연경당의 봉심 즉 건물 상태를 관찰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순조와 익종의 어진을 모시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주합루에 순조의 어진, 연경당에는 익종의 어진이 봉안된 것이다. 그러나 그 며칠 후 두 어진은 각각 경모궁과 경우궁으로 옮겨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 그러다가 헌종5년에 경모궁 봉안각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아마도 이 때 익종어진은 다시 연경당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철종8년에 와서 익종 어진은 창덕궁 서쪽의 대유재로 옮기도록 명한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익종 어진은 헌종 5년경에 다시 연경당에 모셔졌다가 철종 8년에 가서 대유재로 옮겨가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연경당은 창건 직후 익종이 신하를 접견하거나 진작례가 거행된 일을 제외하고는 주로 어진을 봉안하는 건물로 이용되었다. 연경당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과거부터 진작각과 같은 왕실 서화를 보관하는 곳이었고 그 주변 일대 역시 봉모당, 규장각을 포함해서 주로 왕실의 서책이나 기물 보관 장소로 활용되던 곳이었다.

순조 때 창건된 이후 연경당이 크게 개축되었다는 기사는 철종 때까지 보이지 않는다.¹²⁾ 따라서 매년 초상화나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봉심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건물 수리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연경당은 순조27년 창건된 이래 적어도 철종 8년까지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¹³⁾

12) 헌종 12년(1846) 2월18일 「일성록」 기사에 '연경당의 신건을 검토하다'는 기사가 있으나 공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3)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동궐도」 상의 그림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궐도」에 그려진 연경당은 순조 27년에 지어진 건물 모습이다. 따라서 「동궐도」는 순조 27년

3. 고종 2년의 연경당 수리와 후원의 변화

3-1. 고종 2년의 연경당 수리

집터가 서늘하고 습해서 어진을 옮겨간 이후에 연경당은 한 동안 빈 건물로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고종이 즉위하고 3년째가 되던 고종 2년에 가서 연경당을 수리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 때의 수리는 단순히 연경당 만을 고친 것이 아니고 의두합(또는 의두각)을 고쳐 짓고 주변일대를 크게 손대었는데 특히 오랫동안 후원 내 중요 건물로 쓰이던 어수당이 이 때 와서 사라졌다. 고쳐진 연경당은 현재와 같은 남녀 공간이 구분된 새로운 형태로 지어졌다고 판단된다.

『일성록』 고종 2년 4월20일 기사에 연경당에 관한 아래와 같은 기사가 보인다.

연경당과 의두합을 수리할 때 감독을 맡은 훈련대장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다. 별단에 따라 교하여 가로되 전대장판부사김병국, 대장대호군임태영에게는 각각 포범 가죽 하나씩을 내리고, 간역 패장 정현 박계천 등 3인에게 상으로 직급을 올려 주고 그 나머지 원역공장 등은 모두 상주한대로 시상하도록 하다.

〔演慶堂倚斗閣修理時監董訓鍊大將以下施賞有差〕因別單教曰, 前大將判府事金炳國大將大護軍任泰瑛各內下豹皮一令賜給, 看役牌將正憲朴啓天等三人竝賞加, 其餘員役工匠等竝依判下施賞

고종 2년 4월에 연경당과 의두합 수리가 끝나고 공사에 참여한 관리와 장인들에 대한 시상을 내려졌는데, 공사 책임을 맡은 김병국과 임태영에게 표범 가죽 한 장씩이 내려지고 간역 패장 3인을 비롯한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도 고루 상을 내린 것

이후의 창덕궁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하한 시기는 통명전이 재건되는 1834년 이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궐도」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주남철, 「동궐도」, 「동궐도」(문화재관리국, 1991)에서 의두각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점을 들어 의두각이 건립된 1827년 이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1828년 6월 진작례가 거행된 연경당이 묘사되어 있는 만큼 1827년 이전 제작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본고의 주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의 논고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단, 의두각의 경우는 1827년 지어진 후 건물명칭이 「동궐도」 상에 나오는 것처럼 양안재, 윤경거 등으로 당호만 바뀌었을 뿐 건물은 의두각 건물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다. 공사 책임자에게 표범 가죽을 내리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¹⁴⁾ 나머지 간역패장이나 관리들과 장인들에게 두루 시상을 했다는 점에서 연경당 수리가 단순한 부분적 수리가 아니었음을 시사해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공사 총책임자인 김병국은 당시 예조, 호조 판서를 거쳐 훈련대장에 있었던 인물이며, 1865년에 시작된 경복궁 중건 때는 영건도감제조를 맡을 정도로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함께 표피 1장을 하사 받은 임태영은 1863년 어영대장에 있다가 1865년에는 훈련대장으로 승진하여 역시 경복궁 중건의 영건도감제조를 겸하였다. 공사 책임자들의 지위나 이들이 받은 시상 내용으로 미루어 고종 2년의 수리가 본격적인 공사였음을 짐작케 해준다.

1907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宮闕誌』, B15)에는 연경당의 건물 규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종 2년 수리에 의해 지어진 연경당의 건물 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演慶堂 14間 以西有 內堂10間半 以東南間牆一角門通碧門以北間牆一角門佑申門以東有

善香齋14間以北有

濃繡亭一間以南間牆一角門韶陽門

北行閣14間半

西行閣二十間內有允正門

南行閣二十一間內以東有長陽門以西有修仁門

外行閣二十五間內有長樂門以東

守宮十五間以南有蓮池二處以南有沓十夜味以西有

守宮十六間今無

이 기록에 의하면 주요 전각은 연경당, 내당, 선향재, 농수정이며, 북, 서, 남에 각각 행각이 있고 남행각에는 장양문, 수인문이 있으며, 따로 의

14) 일례로 수원 화성성역이 있을 때 왕은 공사총책임자인 영의정 채제공에게 큰 호랑이가죽 하나를 내린 적이 있다. 이에 비해 표범 가죽은 건설공사나 왕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자주 상으로 내리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작은 것은 아니었다.

15) 이 『宮闕誌』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윤홍로 심대섭, 「창덕궁관련자료」(「창덕궁인정전행각중건공사보고서」, 1999)에서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증보문헌비고』의 최종 편찬이 이루어진 1907년경 제작한 것으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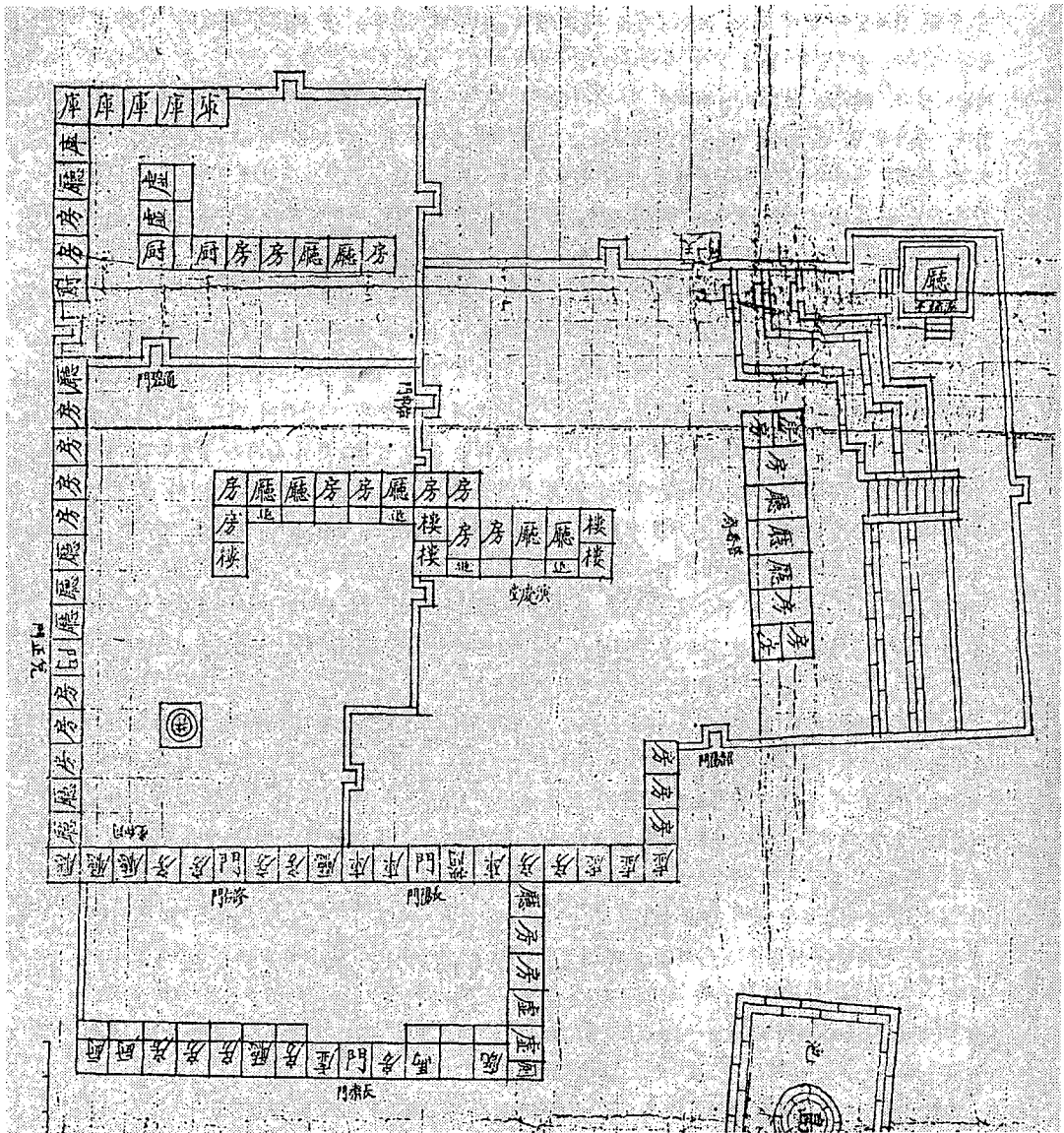


그림 3 「동궐도형」에 묘사된 연경당

행각이 있고 대문인 장락문이 있다고 하였다. 역시 1907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동궐도형」¹⁶⁾에 묘사된 연경당은 「궁궐지」 B 기사와 일치한다. 즉, 외행각을 들어서서 남행각 우측에 놓인 장양문을 들어서면 연경당으로 향하게 되고 좌측의 수인문을 들어서면 내당에 이르게 되며 연경당과 내당은 담장으로 구획되고 연경당 동측에는 선향계가 놓여있다. 또 선향계 뒷편으로는 언

덕 위에 농수정이 자리잡고 있다.

고종 2년의 수리는 공사책임자와 관리들에게 큰 상을 내릴 만큼 본격적인 공사였다. 이 기사 이후에 연경당을 수리하였다는 기사는 찾아 볼 수 없다. ㄷ자 형태로 순조 27년 창건되었던 연경당이 철종 8년까지 익종의 초상화를 모시는 용도로 활용되었던 점과, 고종 2년 수리 이후 더 이상 대규모 공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와 같은 형태의 연경당이 조성된 시기는 고종 2년 공사 이외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궁궐지」 B와 「동궐도형」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도 지금의

16) 「동궐도형」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도 윤홍로 심대섭 「암굴」(1999)에서 「궁궐지」가 편찬된 1907년경으로 파악하였다.

연경당이 고종 2년 수리 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궁궐지』 B나 『동궐도형』에 그려진 건물 형태는 두 자료가 제작된 1907년경의 연경당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과연 여기 언급된 연경당을 비롯해서 내당, 선향재, 농수정 등이 모두 고종 2년 수리 시에 한꺼번에 조성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고종 2년 수리 이후 연경당은 한동안 비운 상태였고 그 이후에는 간헐적으로만 이 건물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종 2년 이후에 연경당에 새로운 시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궁궐지』 B에 기록된 건물들은 고종 2년 수리 시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 남아있는 연경당 건물도 위의 두 자료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북행각 14칸 반 가운데 일부는 철거되고 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행랑의 내부 구조가 부분적으로 변경된 정도이다.¹⁷⁾ 따라서 현재의 연경당 건물은 고종 2년 수리 시에 이루어진 건물형태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경당의 각 시설에 대해서는 근래 『궁궐지』 B 기록과는 조금 다른 호칭이 붙여져 있다. 즉, 『궁궐지』 B에 연경당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사랑채로 불리고 있으며 내당은 안채로, 북행각은 반빛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호칭은 사료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연경당 전체를 사대부 주택에 견주어서 편의상 붙인 명칭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연경당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건물구성과 세부형태이다. 연경당 건물의 구성은 조선후기 사대부 주택의 구성과 흡사하다. 연경당과 내당은 각각 사대부 주택의 사랑채와 안채에 해당된다. 기둥이나 보, 창호의 구성도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지만 기본 수법은 일반 사대부 주택의 그것과 동일하다. 특히 건물에 단청칠을 하지 않은 것은 연경당이 이전의 궁궐에서는 보기 어려운 주택풍의 건물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연경당은 고종 2년 다시 지어진 후 크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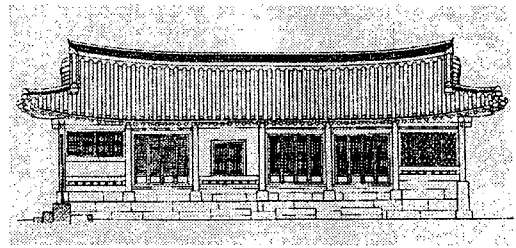


그림 4 연경당 현황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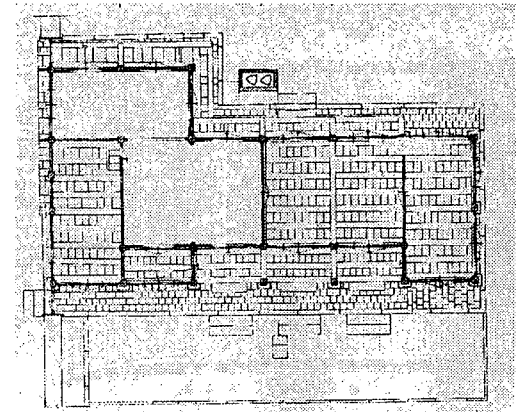


그림 5 연경당 현황평면 (『한국전통건축』 제2집, 대한건축사협회, 1994)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연경당을 다시 짓고 나서 3년 후인 고종 5년에 가서 경복궁이 중건되어 왕실은 창덕궁을 비우고 경복궁으로 이윅했기 때문이다. 『일성록』에서 고종 이후 연경당의 활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고종 20년(1883) 6월 24일 동래부사 조병필을 연경당에서 소견하다

고종 21년(1834) 2월 10일 연경당에서 유생 김종무 등 9인에 대한 회시를 치르다

고종 30년(1893) 2월 29일 태묘에 알현하고 나서 북장문을 나서 연경당에 이르렀다가 내전에 들다.

고종 30년(1893) 4월 1일 태묘에 알현하고 북장문에서 연경당에 이르렀다가 내전으로 돌아오다

고종 30년(1893) 5월 27일 종묘에 전알하고 북장문을 나와 연경당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려 내전으로 돌아오다

고종 31년(1894) 5월 10일 미국공사를 연경당에서 소견하다

융희 2년(1908) 4월 21일 태자대사 이등박문을 연경당에서 접견하다

융희 2년(1908) 4월 29일 연경당에서 좌등진 등에게 오찬을 내리다.

17) 「동궐도형」과 현재의 연경당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는 주남철, 『연경당』(2003)에 자세히 고찰되어 있다.

경복궁이 중건되고 나서 고종은 주로 경복궁을 거처로 삼았지만 고종 14년(1877)부터는 특별한 때 창덕궁으로 이어해서 지내곤 하였다. 고종 20년에 동래부사를 연경당에서 접견한 것이나 21년에 회시를 거행한 것도 창덕궁에 이어해 있을 때의 일로 판단된다. 창덕궁 이어 시에는 연경당을 이따금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종의 주 거처는 경복궁이었으며 그 때문에 연경당에 들르는 것은 한정되어 있었다. 고종 30년에는 몇 차례 종묘에 전배하고 나서 북장문 즉 종묘와 창덕궁 사이의 출입문을 통해 연경당까지 들었다.

3-2. 연경당 수리에 따른 주변의 변화

고종 2년 수리 이후 연경당 주변은 크게 바뀌게 되었다. 본래 연경당 부근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魚水堂이었다. 어수당은 효종 이전에 창건된 이래 이 건물을 두고 여러 임금의 지은 詩가 전하는 중요한 건물이다. 또 여기서 임금이 신하들을 접견하기도 하고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을 친히 만나보기도 하였다. 효종 때는 왕이 우암 송시열을 어수당에 불러 오랫동안 담소한 일이 하나의 故事처럼 전하기도 하였다. 어수당 건물의 존재는 대체로 순조 29년까지 확인되지만 그 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¹⁸⁾ 아마도 어수당은 순조 30년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건물이 퇴락하여 고종 2년 수리 시에는 다시 지어지지 못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궁궐지』에 의하면 본래 어수당은 영화당 북쪽에 있으며 동쪽과 서쪽에 연못이 있고 靈沼門과 남쪽의 石渠門이 있다고 하였다. 「동궐도」에는 어수당의 이러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동궐도」에 의하면 영화당을 지나면 작은 연못을 만나고 그 왼편에 긴 담장이 이어지면서 金馬門과 不老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마문을 들어서면 왼쪽으로는 양안재로 가는 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愛蓮亭이 있는 연못으로 통하게 되며 전면에 있는 석거문을 지나면 우측에 어수당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어수당 좌우에는 연못이 있고 왼쪽 연못 옆으로 ㄱ 자형의 守宮舍 건물이 있고 그 안쪽 깊은 곳에 ㄷ 자형의 연경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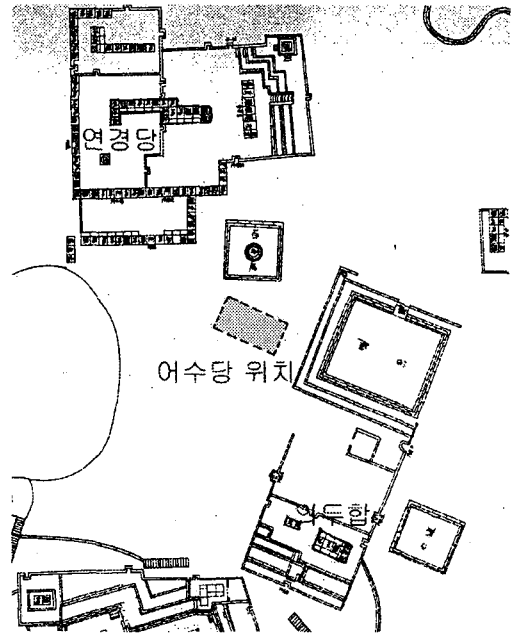


그림 6 「동궐도형」에서 본 어수당 위치와 연경당

이 자리잡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07년경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동궐도형」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즉, 영화당에서 우측 연못 왼편 담장까지는 동일하지만 금마문이나 불로문을 들어서면 그 사이의 담장이 사라지고 없고 어수당이 없으며 연경당이 과거 수궁사가 있던 곳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다.

연경당이 새로 지어지면서 이 일대의 공간 성격은 과거 어수당이 있던 때와 크게 달라졌다. 과거 어수당 가까운 곳에는 춘당대가 있어서 이곳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는 일이 잦았으며 왕이 급제한 유생을 어수당에 불러 접견하는 일이 기록에 여러 차례 나온다. 정조 때는 왕이 각신과 종친 54명을 후원 꽃구경에 불러 어수당 일대에서 경치를 감상하도록 한 일도 있다. 이처럼 어수당 주변은 왕이 신하들이나 급제한 유생을 직접 만나보는 장소로 주로 활용되던 곳이었으며 공간적으로는 인근의 춘당대와 연관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 2년 수리 이후에 이곳의 중심은 연경당으로 바뀌었다. 즉, 금마문이나 불로문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애련정이 있는 연지로 가게되고, 좌측에 의두각이 있고 더 나아가면 하나의 작은 골짜기 안쪽 우측 끝으로 긴 담장으로 둘러싸인 연경당에 이르게 된다. 이 일대에서 연경당은 최종 목적지와 같

18) 순조29년에 효명세자가 어수당에 유생들을 불러 직접 과거 시험을 치른 일이 『순조실록』에 전한다. (『순조실록』 권30, 순조29년 10월 기축)

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고종 2년의 수리 때는 의두합도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공사내용이 어느 범위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동궐도」에 그려진 의두합 주변 건물 모습과 현재의 건물 형태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고종2년 수리 시 의두합은 기존 건물 즉 순조 27년 창건 시 형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다시 지어졌다고 판단된다. 「궁궐지」에 의하면 창건 시 의두합에는 迎春樓라는 동쪽 누가 있고 영춘루 서남쪽에는 韻磬居가 있다고 하였다. 「동궐도」에는 이 부분에 정면4칸, 측면 2칸에 동쪽 끝 1칸이 누마루 형태로 되어 있는 집을 그려놓고 누마루 쪽에 陽安齋라고 표기하고, 이 건물 남쪽에 1칸반 정도의 작은집을 별도로 그리고 運鏡거라고 적었다. 따라서 비록 의두합이라는 표기는 없지만 「동궐도」에 묘사된 건물은 순조 27년 창건된 의두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궁궐지」B에는 '倚斗閣及寄傲軒八間'이라고 하고 그 서쪽에 1칸반 집이 하나 있다고 하였다.

현재도 이곳에는 정면4칸 측면2칸에 동쪽 끝에 누마루가 있는 건물이 있고 그 남쪽에 1칸반 집이 있어서 「궁궐지」B 기사와 일치한다. 따라서 의두합 주변은 순조 27년 창건 형태를 고종 2년 수리 시에도 그대로 답습해서 다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건물의 편액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동궐도」에서는 '양안재'라는 편액이 표기되었고 1907년경에는 '의두합 및 기오현'으로 표기된 듯하다. 현재 이 건물은 기오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면4칸의 이 건물 본래 명칭은 의두합이었으며 순조 27년 창건되고 고종 2년 수리를 거치면서도 건물 형태는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판단된다.¹⁹⁾

19) 의두합(의두각)은 순조 27년에 익종에 의해 창건되었음이 여러 사료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동궐도」에는 의두합 자리에 의두합, 운경거와 흡사한 건물을 그려놓고 남쪽 작은 집은 운경거라 하면서 북쪽 4칸 건물은 동쪽 끝에 '陽安齋'라는 편액을 써 넣었을 뿐 의두합이라는 표기는 없다. 이런 표기 때문에 「동궐도」 제작 시기를 의두합 건립 이전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나온 바 있다.(주남철, 「동궐도」)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동궐도」에 그려진 4칸 건물은 의두합을 가리키며, 양안재는 의두합 내 한 실의 편액명으로 판단된다. 「동궐도」 제작자가 의두합 표기를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3. 고종 2년 연경당 수리의 배경

연경당이 다시 지어지던 고종 2년 4월은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경복궁 중건의 교지가 내려진 때이다. 연경당 수리가 끝나고 공사에 참여한 대신들에 대한 시상이 있던 4월20일보다 18일 앞서서 경복궁 중건이 정해졌고 3년 후에는 경복궁이 완성되어 이어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경당은 다시 지어지고 나서 거의 사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경당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불확실한 만큼 고종 2년에 와서 연경당을 다시 지은 목적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여기서는 고종 2년을 둘러싼 시대 배경을 통해서 하나의 추론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1863년 윤12월 8일 철종이 숨을 거두자 바로 그날로 대왕대비 조씨는 흥선군의 둘째 아들을 왕위 후계자로 정하였다. 당시 새 왕은 나이 10세였다. 왕실 어른인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형태를 취하였지만 정권의 실세는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넘어갔다.

아들이 왕위에 오르던 날, 대원군은 庶政에 參決하게 하고 否臣의 예로 대우하는 특별대우를 받는다. 대원군은 권력을 잡자 곧 양반들의 세력 근거지인 서원의 철폐 준비에 착수했다. 동시에 종친부 관제도 고쳐서 그 동안 위축되었던 종실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였다. 고종 원년 정월 7일에는 대원군의 처소인 雲峴宮을 고쳐 짓고 궁성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 운현궁과 금위영 사이에 출입문을 별도로 냈다. 2월 2일에는 종친부 건물을 새로 지어 종친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즉위 이듬해인 고종 원년 동안에 전개되었다.

연경당 수리가 끝나고 관리들의 시상이 이루어진 것이 고종 2년 4월이므로 본래 연경당 수리의 계획과 착수는 그 전해인 고종 원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 원년에 고종은 나이 11살이 되었고 머지 않아 혼례를 올릴 시기를 맞고 있었다. 실제로 고종은 연경당 수리가 이루어진 그 이듬해 고종 3년 3월에 閔致祿의 딸을 맞아 대례를 치렀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 해 볼 때 연경당 수리의 발의가 대원군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시 대원군은 국정 전반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운현궁의 수리나 종친부의 개건을 비롯한

건물 개수도 대원군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의 여건으로 미루어 대원군을 빼 놓고 연경당 수리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원군이 연경당 수리를 주도했다고 가정할 때, 그 목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이 어린 왕과 왕비가 궁궐 안 한적한 곳에서 거처할 별당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당시 창덕궁에는 정침전으로 대조전이 있고 그밖에도 많은 전각이 마련되어 있었다. 대조전은 침전이지만, 각종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중앙에 대청을 두고 좌우 대청으로 온돌방을 갖춘 것은 이러한 의례 수행을 고려해서 계획된 결과였다. 침전 주변은 겹겹이 행각이 둘러싸고 있고 다른 건물들이 뺨뺨이 들어차 있어서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얻기는 어려운 곳이었다. 고종 2년 지어진 연경당 건물은 전형적인 사대부 주택풍의 건물이었다. 그 건물 구성은 의례를 염두에 둔 침전과 달리 남녀의 공간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진 모습이였다. 사랑채 옆에는 따로 서재를 마련해서 남자가 손님을 접대하거나 학문에 접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다. 대원군은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궁 바깥 사대부의 생활을 체험한 인물이었다. 이런 대원군이 궁궐 침전과 멀리 떨어진 호젓한 곳에 하나의 별당을 지어 왕과 왕비의 거처를 꾸미려고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 건축 형태는 『연경당』(주남철, 2003)에서 언급하였듯이 궁 밖에 지어지던 대군의 집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⁰⁾

또 한 가지, 연경당과 의두합의 수리에는 대왕대비 조씨의 존재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대왕대비 조씨는 바로 익종의 부인이다. 불과 3년 남짓 대리청정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고 30년 이상을 홀로 궁궐생활을 하던 조씨의 입장에서는 익종이 학문을 닦으며 수양하려고 지은 의두합이나 익종이 지어 오랫동안 어진을 봉안해 두었던 연경당을 다시금 번듯하게 손질하기를 희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통 어떤 건물을 완전히 새로 고쳐 짓게 되면 그 당호도 바꾸는 경우가 많지만 연경당의 경우에는 당호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은 셈인데, 연경당이라는 익종이 지은 건물

흔적을 함부로 없애지 않으려고 한 왕실의 분위기를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경당을 새로 짓고 후원 일대를 정비하던 대원군의 심중에는 더 큰 정치적 구상이 싹트었으며, 그것이 고종 2년 4월의 경복궁 중건 반포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경복궁 중건의 반포는 고종 2년 4월 2일 있었다. 연경당 수리가 끝나서 시상을 하기 18일 전이다. 아마도 대원군은 그 전년까지는 연경당을 개축해 나가면서 창덕궁에서 아들 고종과 함께 정치 개혁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새해가 되면서 더 큰 정치 무대를 만들기 위해 경복궁 중건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고종 2년의 연경당 수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대원군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떠나서 연경당과 같은 주택풍 건물의 조성은 19세기 궁궐에서는 하나의 추세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조 궁궐의 침전건물은 엄격한 좌우 대칭 구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침전 주변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행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한가하고 자유로운 여유를 갖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궁궐의 내전 건물에 변화가 엿보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와서이다. 19세기에 와서 창덕궁에는 좌우 대칭을 벗어나고 비교적 넓고 독립된 마당을 확보한 주택풍의 건물이 나타난다. 「동궐도」에 그려진 것을 예로 들면, 중희당 옆의 延英閣이나 文華閣, 五雲樓와 같은 단청 칠을 하지 않은 주택풍의 건물이 있다. 이들 건물은 효명세자와 관련이 있는 건물로 추정되며 이전의 궁궐 내전 건물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비대칭의 주택풍 건물 조성 풍조는 헌종 13년(1847) 낙선재 조성으로 확실한 위상을 굳혔다고 생각된다. 낙선재는 아들이 없던 헌종이 새로 맞은 부인 경빈 김씨와 함께 거처하기 위해 지은 대표적인 주택풍의 별당 건물이었다. 1865년의 연경당 수리는 이러한 궁궐 안에 분 새로운 바람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 연경당의 건립 목적에 대해서는 대군 등 왕족들의 집에 지어지던 書齋(西廳)인 선향재가 지어진 점을 근거로 해서 궁궐인 대군집을 모방해서 지은 것이라는 견해가 주남철, 『연경당』(일지사, 2003. 27쪽)에서 제시되었다.

4. 樂善齋, 演慶堂, 乾清宮에서 보는 19세기 궁궐 건축의 새로운 전개

낙선재가 조성된 것은 현종 13년(1847)이고 연경당이 다시 지어진 것이 고종 2년(1865), 그리고 경복궁에 건청궁이 지어진 것은 고종 10년(1873)이다. 각각 18년과 8년의 시차를 두고 창덕궁과 경복궁에 지어진 이들 건물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세 건물의 비교를 통해서 고종 2년 연경당 수리가 갖는 궁궐 건물의 역사적 위치를 살필 수 있으며 아울러 19세기 궁궐건축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음미할 수 있다.

4-1. 낙선재와 건청궁의 조성

낙선재가 지어진 것은 현종 13년이다. 낙선재는 창덕궁의 동쪽, 과거 동궁 건물이 있던 곳이다. 본래 이곳에는 동궁 건물로 儲承殿과 時敏堂이 있었다. 그런데 저승전이 영조 32년(1756) 소실되고 다시 정조 4년(1780)에는 시민당 마저 불에 타고 말았다. 시민당이 소실된 뒤, 정조는 이곳을 복구하는 대신에 회정당 가까운 곳에 새 동궁전으로 重熙堂을 세웠다. 그리고 한 동안 방치되었던 본래 동궁 지역에는 정조 9년(1785) 壽康齋를 세웠다. 수강재는 정조가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경모궁에 참배 차 오가면서 잠시 머무는 곳이었다. 「동궐도」에 그려진 수강재 주변은 넓은 공터가 있고 수목들이 군데군데 있는 한적한 모습이다. 이런 곳에 후손이 없던 현종이 새로 경빈 김씨를 부인으로 맞아들여 왕과 부인이 내전과 떨어진 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은 것이 낙선재이다.²¹⁾ 건물은 기존의 수강재를 그대로 두고 그 서편으로 경빈 김씨의 처소인 석복헌을 짓고 다시 석복헌의 서편으로 왕의 처소로 낙선재를 지었다. 남향한 세 건물이 옆으로 나란히 지어지고 세 건물을 각각의 행랑이나 담장이 경계를 이루도록 한 모습이다.

「궁궐지」 B에 적힌 낙선재 일곽의 규모는

樂善齋 17間半, 南行閣 12間, 西行閣 15間, 外行閣 15間, 六隅亭, 行閣 14間

錫福軒 16間半, 東行閣 7間, 西行閣 5間, 南行閣 7間半, 中行閣 13間, 外行閣 11間

壽康齋 15間

이다. 이 가운데 새로 지은 낙선재와 석복헌은 기존의 궁궐 침전과 달리 평면구성이 비대칭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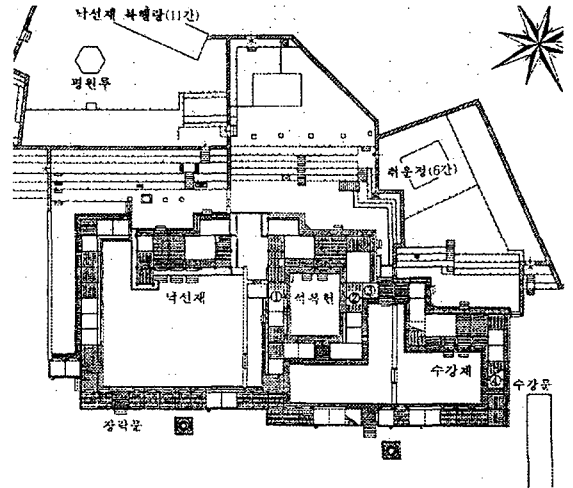


그림 7 낙선재 현황배치도 (노진하, 이상해, 「낙선재 일곽의 조영에 관한 연구」, 1995에서 옮김)

루며 온돌방과 대청, 퇴간이 실내의 기능에 맞추어 적절히 배열되고 단청도 하지 않아 이 시기 사대부 주택과 흡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기둥이나 창방, 도리 등도 이전의 침전에 비해서 세장하게 꾸며지고 창호나 난간은 섬세한 가공을 하여 조선 후기 사대부 주택의 세련미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또한 주변 담장이나 박공면에는 벽돌을 이용해서 갖가지 길상문이나 포도 문양 등을 장식해서 건물 외관을 한층 돋보이도록 하였다. 낙선재의 한쪽 끝은 누마루를 돌출 시킨 모습이였다. 이 건물은 처음 지어졌을 때, 낙선재에는 현종이, 석복헌에는 경빈 김씨가, 그리고 그 오른편 수강재에는 왕대비인 순원왕후가 거처하도록 배려하였다고 전하는데,²²⁾ 낙선재와 석복헌에 각각 남성 영역과 여성 영역을 뚜렷이 구분한 점이 주목된다.

경복궁에 건청궁이 지어진 것은 고종 10년(1873)이었다. 고종 2년에 착수된 경복궁 중건 공사는 3년이 걸려 고종 5년(1868) 6월에 대체적인 준공을 보았다. 왕은 이해 7월 2일에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²³⁾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고종 10년(1873)에 건청궁 공사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기사가 각종 사료에 보인다.

고종 10년 5월10일 기사에 副護軍 姜晋奎가 상소하

21) 낙선재의 건립 목적에 대해서는 盧辰河, 李相海, 「樂善齋 一廓 建築의 造營에 관한 復元的 考察」, 「건축역사연구」, 7집, 1995. 6에 의함

22) 노진하, 앞글, 48-53쪽

23) 「고종실록」 권5 고종5년 7월 을유

여 건청궁 공사가 지나치게 사치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성록』)

고종 10년 8월 19일 좌의정 姜滄가 乾清宮 토목공사가 10년이나 지속되어 물의가 있음을 지적·절약할 것을 요청하다.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12월 10일 왕이 건청궁에서 대신과 종친, 각신들의 문안을 받았다. (『내각일력』)

자경전이 실화하여 어진을 乾清宮 長春室에 이봉하다.(동)



그림 8 건청궁의 일부(곤녕합) 전경

건청궁은 경복궁 후원 가장 깊은 곳에 지은 일종의 별궁이다. 위 기사로 미루어 궁은 고종 10년 5월경에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건청궁 공사가 10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좌의정 강노의 말은 경복궁 전체 공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청궁 공사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건청궁은 이 해 12월 이전에 완료된 듯하여 12월 10일에는 왕이 궁에 임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청궁의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궁궐지』 B에

長安堂 27間 (西北有寢房 卽 正化堂, 南有秋水芙蓉樓) 東行閣 6間, 北行閣 22間

坤寧閣 16間 (東北有寢房, 南有四時香樓) 西復道 6間, 東行閣 22間, 西行閣 5間半, 南行閣 11間, 北行閣 9間

福綏堂 10間半, 西行閣 10間, 東行閣 7間

이 있다고 하고 건청궁 남쪽에 연지가 있고 연지 가운데 香遠亭이 있다고 하였다.

각 건물 가운데 長安堂은 주로 왕이 거처하는 곳이고 坤寧閣은 왕비의 처소로 쓰였다.²⁴⁾ 「북궐도형」에 그려있는 건청궁의 배치모습을 보면, 건청궁 전체는 네모 반듯한 행각으로 둘러싸이고 장안당이 약간 서쪽 중앙에 자리잡고 곤녕합은 장안당의 동쪽 뒤편에 각각 남향해서 자리잡았다. 두 건물 사이는 행각들로 구분되어 있다. 또 남쪽 행각에 난 출입문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장안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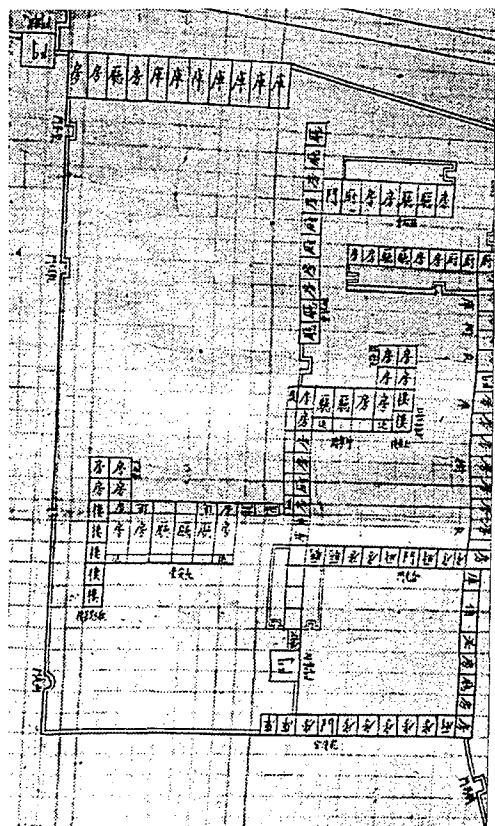


그림 9 「북궐도형」의 건청궁 모습

통하는 문이 있고 정면에는 곤녕합으로 향하는 문이 나 있다.

「북궐도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장안당 뒤편의 넓은 공터에는 觀文閣이 있었다. 관문각은 처음 觀文堂이란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건물명으로 미루어 서책을 보관하고 왕의 학문소 기능을 갖는 일종의 서재와 같은 곳이었다고 짐작된다. 관문각

24) 「고종실록」에는 왕이 장안당에서 유생들의 전강을 보았다는 기사(『고종실록』 권24 고종24년 7월 기사)나 여러나라 공사들을 접견하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고종실록』 권31 고종31년 2월 을묘) 또 곤녕합에 대해서는 고종32년 8월 20일에 민 왕후가 곤녕합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적어 이 건물이 왕후의 처소였음을 알려 준다.(『고종실록』 권32 고종 32년 8월 무자)

에는 종종 어진이나 책보를 봉안하기도 하였다.

장안당은 주로 고종이 거쳐하면서 신하들을 접견하거나, 특히 외국공사들을 접견하였다. 곤녕합은 민 왕후가 시해된 현장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왕후의 처소로 쓰였다. 두 건물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행각으로 철저히 영역이 구분되어 있음을 「복궐도형」 배치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건청궁에서도 남성 영역과 여성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성영역인 장안당 뒤에는 서재인 관문당을 두어 남성 영역 공간을 특징 짓고 있다.

건청궁은 1910년 이후 완전히 철거되어 그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철거 전에 찍은 약간의 사진이 남아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현장이었던 곤녕합의 일부를 포함해서 건청궁 전면의 행각 사진을 볼 수 있다. 사진으로 전하는 곤녕합의 모습을 보면 이 건물이 사대부 주택풍의 외관을 갖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곤녕합은 높은 기단 위에 대청으로 보이는 중앙부가 있고 오른쪽 끝으로 玉壺樓라는 당호가 붙은 누마루가 있는데 전체 형태는 연경당 사랑채를 연상시킨다. 「궁궐지」 B에 의하면, 장안당에는 추수부용루라는 부분이 있고 곤녕합에는 사시향루가 있다고 하였다. 두 건물 모두 건물 한쪽에 누마루가 갖추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누마루는 조선후기 사대부 주택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의 하나인데 건청궁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곤녕합 주변 담장은 벽돌을 가지고 길상문과 같은 각종문양으로 치장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²⁵⁾ 이런 것들로 미루어 장안당이나 곤녕합 등 건청궁의 주요 건물은 주택풍의 형식을 취하면서 앞서 지어졌던 낙선재나 연경당 보다 한층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이었다고 판단된다.

4-2. 19세기 궁궐건축의 새로운 전개

낙선재와 연경당, 그리고 건청궁 세 건물은 서

로 공통된 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각기 다른 특징도 갖고 있다. 세 건물이 갖는 공통점은 그것이 19세기 중엽에 궁궐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차이점은 건립 시기의 차이에서 오는 단계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연경당은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건물이었다.

세 건물이 지닌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모두가 침전 일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왕과 왕비 또는 후궁이 함께 거처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진 점이며, 둘째 건물 구성에서는 왕의 영역과 왕비 또는 후궁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이고, 셋째는 세 건물 모두 기본적으로는 과거 궁궐에서 볼 수 없었던 사대부 주택풍의 건축특징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

낙선재는 과거 창덕궁의 동궁 처소가 있던 곳에 자리잡았다. 대조전에서 낙선재로 가기 위해서는 뻑뻑이 들어선 많은 건물과 행각 사이에 난 출입문을 일곱 개정도 통과해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만큼 낙선재는 창덕궁 내 중심부에서 벗어난 곳에 있었다. 연경당은 후원 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역시 침전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런 점은 건청궁에서 한층 두드러져서, 건청궁은 경복궁의 가장 뒤쪽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세 건물이 공통적으로 정전이나 침전 등 궁궐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이들 건물이 궁궐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례나 정치적인 사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로 지어졌음을 말해준다. 궁궐의 정전이나 침전은 각종 유교적인 의례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에 3칸 대청으로 두고 좌우를 대청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위 세 건물에는 그러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세 건물은 왕이 정치나 유교의례의 의무에서 벗어나 왕비나 후궁과 한가롭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어졌으며 그러기 위해서 궁궐 중심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 건물은 공통적으로 왕의 영역에 인접해서 왕비나 후궁의 영역을 갖추고 있다. 두 영역은 인접해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해 놓아서 각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조선시대 궁궐 침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 강녕전이나 창덕궁 대조전은 비록 동온돌과 서온돌로 나

25) 19세기말에 한국을 방문한 船越欽哉는 경복궁을 둘러보고 특히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건청궁에 대한 상세한 건물특징을 적은 글을 「朝鮮家屋の話」라는 제목으로 일본건축학회지 「建築雜誌」 제141호(1898)에 남겼다. 이 기사에 의하면 건청궁의 장안당과 곤녕합에는 수석을 놓은 화단과 각종 문양으로 치장한 담장이 꾸며져 있었다고 전한다.

뉘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왕과 왕비는 한 지붕 아래 하나의 대청을 공유하도록 계획되었다.²⁶⁾ 이런 침전의 형식에 비하면 위 세 건물의 공간계획은 왕과 왕비(후궁) 모두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서로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배려한 점이 발견된다. 조선시대 주택은 대체로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랑채와 안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특히 사랑채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낙선재나 연경당, 건청궁의 공간 구성은 17세기 이후 형성된 사대부 주택의 그것과 상통한다.

공간구성만이 아니고 건물의 전체외관이나 실내구성, 세부 치장에 이르기까지 세 건물은 기본적으로 사대부 주택을 본 받았다. 온돌방과 마루방을 대청을 피하면서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건물 한 쪽에 누마루를 두는 수법은 이미 조선후기 사대부 주택에서 완숙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이것을 적절하게 차용하되 기술적으로는 한 단계 더 고급스럽게 해서 세련미를 더한 것이 세 건물이다.

1846년에는 낙선재가 지어지고 1865년에는 연경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고 1873년에는 건청궁이 등장하면서 19세기 궁궐에서 이러한 사대부 주택풍의 건물은 하나의 새로운 경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침전처럼 대청을 강조하고 무겁고 경직된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건물은 가볍고 비대칭의 유연한 흐름을 지니고 있었다. 바닥 높이를 달리하고 장초석을 올린 누마루는 전체 외관에 변화를 주었으며, 창호에는 정교하고 화려한 기하학적 문양을 꾸며 세련미를 더 했다. 벽돌을 이용한 벽이나 건물 세부의 치장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향이었다. 세 건물의 조성은 19세기 궁궐건축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커다란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

고종 2년의 연경당 수리는 낙선재와 건청궁 사

이의 중간 시점에 속한다. 낙선재와 연경당을 비교해보면, 아직 낙선재에서는 궁궐 안에서의 독립성이 부족한 점이 엿보인다. 낙선재 주변에도 많은 행각들이 늘어서 있지만, 왕의 독립된 서재는 보이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는 별도의 장소도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 비하면 연경당은 하나의 별당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선향재라는 서재 기능을 갖춘 독립 건물이 있고 또 북행각은 음식을 마련할 만한 충분한 공간과 영역을 갖추고 있다. 공간의 크기에서도 낙선재의 석복헌에 비하면 연경당의 내당이 훨씬 공간의 여유가 있고 영역의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 연경당과 건청궁을 비교하면 모든 점에서 건청궁이 돋보인다. 궁궐 안에서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건청궁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별궁이다. 낙선재나 연경당에서 시도된 독립성이 여기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왕과 왕비의 영역에서도 건청궁은 다른 건물을 압도한다. 건청궁의 장안당 뒤에는 따로 관문각이 있어서 왕의 서재 기능을 했다. 곤녕합은 사방이 행각으로 둘러싸이고 뒷편에는 복수당이 있고 따로 북행각이 있어서 음식 마련을 비롯한 별궁에서 필요한 모든 준비가 가능하였다. 심지어 곤녕합 서행각에는 의복을 보관하는 衣帶庫가 5간이나 마련되어 있었다.²⁷⁾

이런 점에서 연경당은 세 건물의 중간 위치에 놓여 있다고 평가 내릴 수 있다. 연경당은 19세기에 불어온 궁궐건축의 새로운 변화 물결 속에서, 낙선재에서 나타난 여러 시도들이 건청궁에서 완성될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 건물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글

연경당이 처음 지어진 것은 여러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순조의 존호책보를 올리고 진작례를 거행한 순조 27년(1827) 9월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창건된 연경당의 건물 형태는 「동궐도」에 묘사된 것과 같이 중앙에 정당을 두고 양끝으로 동은 돌과 서은돌이 돌출된 ㄷ자 형태 건물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창건 이후 연경당은 헌종 8년까지 건물 형태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용도는 익종으

26) 고종 중건 이후의 경복궁의 경우, 강녕전은 왕의 침점, 교태전을 왕비의 침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글들이 있지만, 중건 전의 경복궁에서 강녕전은 왕과 왕비의 침전이고 교태전은 왕이 신하들을 접견하는데 쓰인 연침의 하나였음이 최근의 논고에서 밝혀졌다.(홍석주, 「조선조 광해군대 궁궐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 2001) 중건 이후의 경우에도 과연 강녕전과 교태전의 기능을 왕과 왕비 침점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27) 「북궐도형」 참조

로 추존된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초상화를 봉안하는 것이었다.

터가 서늘하고 습하다는 이유로 익종 초상화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연경당은 한 동안 빈 건물로 남아 있다가 고종 2년(1875) 4월에 와서 새롭게 개축되었다. 이 때는 인접한 의두합이 함께 수리되었다. 새롭게 고친 연경당은 정당인 연경당과 내당, 그리고 선향재와 농수정을 갖추고 주변에 행각이 둘러싼 주택풍 건물로 바뀌었다. 다시 지은 연경당의 공간구성은 남성영역과 여성영역이 명확히 구분된 것이었으며, 그것은 종전의 침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현재의 연경당 건물은 바로 고종 2년에 다시 지어진 건물로 결론 지었다.

고종 2년의 연경당 개축은 건물 주변의 후원 경관을 크게 바꾸는 공사였다. 본래 이 일대의 가장 중심 건물이었던 어수당이 연경당 개축 과정에서 사라졌다. 대신 익종이 세우고 학문을 하던 의두합은 거의 본래 모습대로 다시 지어졌다. 고종 2년의 수리 결과 과거 임금이 신하들을 만나거나 과거시험을 치르고 급제자들을 접견하던 이 일대의 용도는 왕이 왕비나 후궁과 한적하게 지내며 거처하는 장소로 변모되었다.

고종 2년의 연경당 수리는 전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었다. 국정 주도권을 장악한 대원군은 곧 있을 왕의 혼례를 염두에 두고, 왕과 왕비가 침전에서 멀리 떨어진 호젓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연경당을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연경당은 당시 사대부 주택의 공간 구성을 모방한 건물이었다. 그 선례는 이미 연경당보다 18년 앞서 현종 13년(1847)에 창덕궁에 지어진 낙선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연경당의 경험은 다시 8년 뒤 고종 10년(1873)에 경복궁 건청궁 건립으로 이어졌다. 낙선재는 현종과 경빈 김씨의 거처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풍 건물이며, 남녀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건물세부를 정교하게 치장하여 사대부 주택을 한 차원 승화시킨 건물이었다. 연경당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공간 영역을 명확히 나누고, 서재를 도입하여 낙선재보다 공간개념을 분명하게 하였다. 건청궁에서는 규모도 확장하고 왕의 영역과 왕비 영역을 더 강화하여 궁궐 중심부에서 벗어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별궁이었다. 낙선재, 연경당, 건청궁의 조형은 당시 사대부 주

택을 모방해서 얻어진 것이었으며 이를 더 세련되게 다듬었다. 이들 건물은 과거 침전건물처럼 대청을 중시하고 경직되고 무거운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고 비대칭에 가볍고 변화가 풍부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외관을 이루었다. 세 건물의 연속된 조성으로 19세기 궁궐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건축 조형의 길을 열 수 있었다. 세 건물의 조성은 조선시대 궁궐 건축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성과였다고 평가된다. 연경당은 이 세 건물의 전개 과정에서 중간의 다리 역할을 한 건물이라고 평가되었다. 낙선재가 새로운 조형을 연 출발이라면 건청궁은 그 완성품이었고 고종2년 다시 지어진 연경당은 두 건물을 잇는 가교의 위치에 있었다.

지금, 연경당과 낙선재는 대체로 본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보존되어 있다. 이제 곧 나머지 건물인 건청궁의 복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모조록 이번 복구 작업이 건청궁이 갖는 건축사적 위치를 충분히 음미하여 그 건물 본래의 가치가 충실히 재현되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進爵儀軌
日省錄
承政院日記
高宗實錄
純宗實錄
漢京識略
東國輿地備考
增補文獻備考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東闕圖, 文化財管理局, 1991
盧辰河, 李相海, 樂善齋一廓의 造營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7집, 1995.6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출판부, 1999
昌德宮仁政殿行閣重建工事報告書, 문화재청, 1999
홍석주, 朝鮮朝 光海君代 宮闕建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주남철, 연경당, 일지사, 2003
한영우, 창덕궁과 창경궁, 열화당 효형출판, 2003

A Research on the Reconsrtuction of Yeonkyeong-Dang in the 2nd Year of King Gojong's Reign

Kim, Dong-uk
(Kyonggi University)

Abstract

Located in a rear garden of Changdeok Palace, Yeonkyeong-Dang is valued as the most characteristic building of the houses of aristocrats of the later Joseon Dynasty.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has been much debated, however, it is perceived through this research that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September 1827(the 27nd year of king Sunjo's reign). The shape of the buildings during this period resembles a letter ㄷ as shown in the picture of *Dong-Kweol*. We previously described that the purpose of Yeonkyeong-Dang was to carry the portrait of king Yikjong while keeping the shape of building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until the 8th year of king Heonjong (1842). In 1865 (the 2nd year of king Gojong's reign), it was reconstructed with very different outlook which has remained the present shap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residences of aristocrats were reflected in newly reconstructed Yeonkyeong-Dang. The structure was largely divided into two quarters that occupied by male and female residents respectively. The two quarters were bordered by fences and added with a study and a pavilion. The reconstruction was conducted by king Gojong's father, Daewon-Goon and its purpose was to prepare a separate house for the king and queen before the kings wedding that was about to come.

During the 19th century, building an imitation of houses of aristocrats became quite a trend in the palace. Built in 1847, Nakseon-Jae was precedented and followed by Yeonkyeong-Dang. Also later Geoncheong Palace was built in Kyeongbok Palace in 1873. All of the three buildings imitated houses of aristocrats. Divided residences of male and female sections and splendid decorations were common features. Nakseon-Jae was the smallest in the structure of spaces, ornamentation of details and its sizes, Yeonkyeong-Dang was the second and Geoncheong Palace was the most distinguished building. The constructions of these three buildings created an innovative architectural wave in the 19th century palace. Yeonkyeong-Dang was the building that mediated the new flow of architectural structure in the 19th century palace.

Keywords : palace, aristocrat's residence, asymmetrical, men's quarters, women's quarters
